

“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통해 지방소멸 극복해야”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1주년

우동기 “수도권 집중, 저출생 원인”
중앙·지방정부간 관계 재설정 필요
“기회발전 등 4대 특구로 지방시대”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8일 “수도권 집중이 저출생의 원인”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 재설정을 통해 수도권 쏠림 현상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1주년(10일)을 맞아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수도권의 인구 집중은 높은 부동산 가격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로 인한 기초 생활의 불안정성은 결혼 기피 현상, 저출생 문제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우 위원장은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방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 간 관계 재설정을 통한 분권형 국가 경영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 주도의 기회발전 특구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를 위한 지방 중심의 교육개혁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 젊은이들의 수도권 유입이 저출생을 불러오는 만큼, 지방 분권과 역량을 키우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교육 개혁을 통해 지방을 획기적으로 키워야 한다는 얘기다.

우 위원장은 지방 소멸과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초광역권 활성화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그는 “지방 경쟁력 제고를 위해 4+3 초광역권 산업·문화·SOC(사회간접자본) 분야 협력 사업 등 초광역권 발전 시행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방의 경제 생활권 형성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회발전과 교육발전, 도심융합, 문화 등 4대 특구 도입은 ‘분권형, 지방주도형’ 특구로 기획 운영해 나가겠다”며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고 지방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감면, 재정과 금융지원, 규제 특례 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위한 주택특별공급 등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등 기존 특구 이상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원, 청년층의 지방 이탈 방지와 인구 유입이 기대된다.

이와 관련, 지방시대위는 전남 등 8개 시도에 특구 지정을 의결했다.

전남의 경우 이차전지, 해상풍력, LNG터미널 및 수소산업, 데이터센터, 문화콘텐츠산업 등 다양한 산업군에 있는 기업들이 유치된 광양·여수·목포·해남·순

천 등 5개 지역내 입지 총 125만1000평이 지정됐다.

지방시대위는 ‘인구감소지역 부활 3중 세트’ 정책도 내놨다.

△인구감소지역 1세대 1주택(공시가격 4억원) 세제 혜택을 적용하는 ‘세컨드홈’ 활성화 △미니 관광단지(1조4000억원 사업규모) 10개 지정(2025년 1분기) △외국인 유입 지원 및 농어촌 활력 증진(지역특화형비자 참여지역을 28개에서 66개로, 인원은 1500명에서 3219명으로 확대) 등이다.

우 위원장은 “앞으로 지방시대위원회는 중앙 주도의 국정운영 체제를 지방정부 주도로 전환 지원하겠다”며 “과감하게 지방정부의 자치권(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등)을 확대하고, 자주 재원을 확충해 지방의 자립적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광주시의장에 신수정... 개원 이래 첫 여성 의장

“시민 눈높이 맞는 의회 만들겠다”
1부위원장 서용규·2부위원장 채은지

광주시의회 개원 이래 첫 여성 의장이 선출됐다. 시의회는 8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제9대 후반기 의장에 신수정 의원(북구3)을 선출했다.

신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치러진 의장 선거에서 유효표 23표 가운데 과반이 넘는 16표를 얻었다. 남은 유효표 중 4명은 무효 처리됐고 3명은 기권했다.

1991년 7월 지방의회 출범 이후 광주시의회 여성 의장은 신 의원이 최초다.

신 의원은 앞서 지난달 29일 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조선인 강수훈 의원(서구1)에 승리, 이날 선거에 단독 입후보했다.

신 의원은 “선거 기간 찾아뵙고 약속한 것들에 대해 꼭 지키겠다. 조선의 패기와 열정이 그대로, 재선의 경험과 노련함이 경륜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모두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협치와 소통의 정치로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시민



신수정 서용규 채은지

들의 눈높이에 맞는 시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광주 출생으로 제5·6·7대 북구의원을 역임했다. 북구의회 최초로 여성 부의장을 지냈으며, 제8·9대 시의원 재직 중 ‘전국 최초 은둔형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 공로로 제4회 위민외정대상 최우수상과 2년 연속 지방의원 매니페스트 약속대상을 수상했다.

시의회는 이날 2명을 선출하는 부의장 선거도 진행해 1부위원장에 서용규(민주당·비례) 의원, 2부위원장에 채은지(민주당·비례) 의원이 각각 당선됐다.

유일한 국민의힘 소속인 김용임 의원(비례대표)도 제2부위원장 선거에 출마해

- 영호남 화합, 소통, 협력의 장 -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2024. 7. 8 (월) / 무주 태권도원 인관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가 8일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려 강기정 광주시장 등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10대 분야 공동대응 성명서에 서명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성현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창환 전남도경제부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김선조 대구행정부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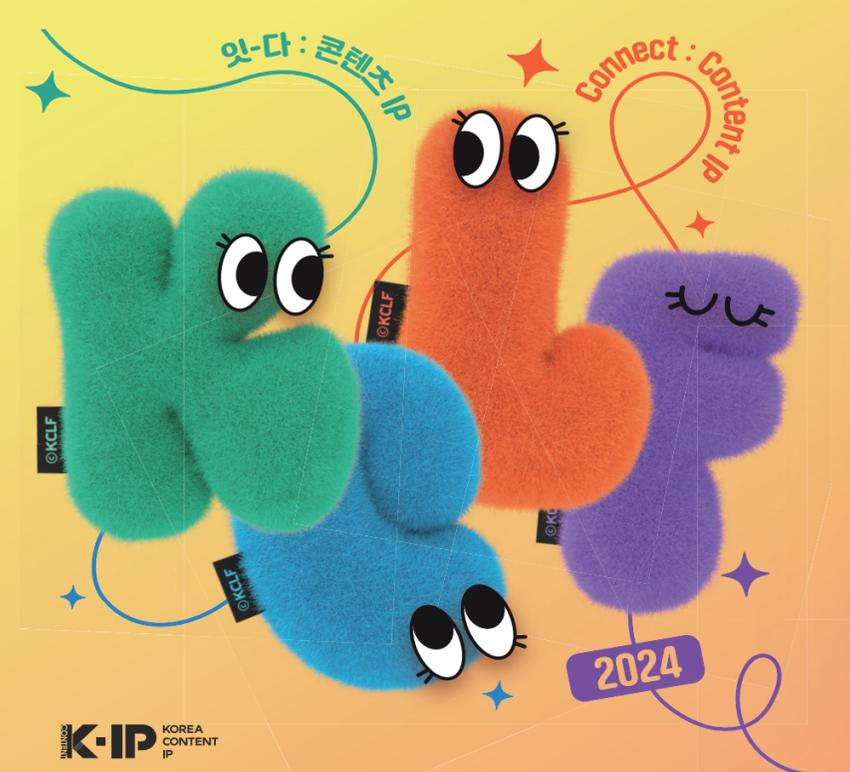
▶관련기사 1면 광주시 제공

채은지 후보와 경선을 했으나 5표를 받는데 그쳐 낙선했다. 다만 전체 시의원 23명 중 민주당 21

명, 국민의힘 1명, 무소속 1명 구성에서 ‘민주당 표’를 받았다는 점에 ‘이례적 결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후반기 의장단 임기는 오는 11일부터 시작한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2024

2024. 7. 18 - 21

코엑스 Hall A&B1

